

# 남녀 중학생의 자아탄력성, 또래애착 및 휴대폰 이용관련 특성이 휴대폰의 기능별 사용에 미치는 영향 - 융복합시대의 SNS와 메신저, 인터넷, 음악기능 사용을 중심으로 -

김은주  
한서대학교 간호학과

## Effects on mobile phone functional use of ego resilience, peer attachment and mobile phone-related characteristics in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 focused on uses of SNS & messenger, music and internet in era of convergence-

Eun-Ju Kim  
Department of Nursing, Hanseo University

**요 약** 남녀 중학생 217명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또래애착의 하위영역 특성, 휴대폰 이용관련 특성이 휴대폰의 기능별 사용정도, 즉 SNS와 메신저, 인터넷, 음악기능 사용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남녀중학생의 68.6%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기능은 SNS와 메신저이었다. 휴대폰 SNS & 메신저기능 사용정도는 남학생의 경우 자아탄력성의 대인관계 수준이 높을수록, 활력성 수준이 낮을수록 높았고, 여학생은 또래애착의 의사소통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 휴대폰 인터넷기능 사용정도는 남녀학생 모두 자아탄력성의 호기심 수준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또한 여학생은 학년과 성적이 영향요인이었다. 이를 통하여 휴대폰 기능별 사용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을 하위영역별로 적용하여 증재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자아탄력성, 또래애착, SNS, 인터넷, 음악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 of ego resilience, peer attachment and mobile phone-related characteristics on mobile phones functional uses, focused on the use of SNS & messenger and music and internet in middle school students. **Methods:** The subjects were 217 middle school students in 2 cities. **Results:** The factors affecting mobile phones SNS & messenger usages were interpersonal relation, viability of ego-resilience in male, and communication of peer attachment in female. The factors affecting internet usages were curiosity of ego-resilience in both sexes. The factors affecting music usages were viability of ego-resilience in both sexes. **Conclusion:** Education and management about mobile phone functional use should be made, by intervening reflected subregions effect factors of peer attachment and ego-resilience.

**Key Words** : Ego-resilience, Peer attachment, SNS, Internet, Music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grants from Hanseo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in 2014.

Received 3 July 2016, Revised 2 August 2016

Accepted 20 August 2016, Published 28 August 2016

Corresponding Author: Eun Ju Kim

(Department of Nursing, Hanseo University)

Email: eunjkim@hanseo.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 1.1 연구필요성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은 개인용 컴퓨터(PC)와 노트북을 제치고 휴대폰을 필수 매체로 여기고 있으며, 보유율도 2012년 76.0%에서 2015년 91.4%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 이와 같이 보편적인 개인 매체로 자리 잡은 휴대폰은 지금까지의 어떠한 개인 미디어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휴대폰 특성 상 휴대가 간편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또래집단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고, 게임, 음악과 인터넷을 통해 오락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휴대폰이 긍정적인 영향만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들의 휴대폰 과다사용에 따른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해 각종 정부차원의 정책이 취해지고 있는 것이 요즈음 추세이다 [2,3]. 이러한 대처나 중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휴대폰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아탄력성은 어떠한 외적 상황에서도 충동을 통제하고 필요에 따라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내적 변인으로 작용하여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인의 특성을 의미한다 [4]. 이러한 자아탄력성은 휴대폰 과다사용과 관련하여 높은 휴대폰 의존도 성향을 통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반면 [5,6],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7].

또한 또래애착은 또래 간의 지속성 있는 친밀하고 애정적인 유대관계로 [8], 청소년의 행동문제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중학생의 애착불안은 중독 성향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9] 이와 관련된 또래애착과 휴대폰 과다사용과의 관련성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또래애착과 휴대폰 과다사용 간의 관련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도 일관성 없는 서로 다른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즉, 청소년의 또래애착 정도가 크면 휴대폰 과다사용에 빠질 위험성이 커진 경우도 있고 [10,11], 이와 달리 줄어든 경우도 있었으며 [12], 또래애착과 휴대폰 과다사용 간의 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2]. 이는

특정 매개 변수의 개입의 결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매개변수 중의 하나로 휴대폰 기능별 사용정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Noh [2]는 청소년들이 휴대폰 기능 중 SNS를 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휴대폰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으며, Yu와 Hong [13]도 또래애착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애착차원에 따라 다르며, Kim [14]도 또래요인은 휴대폰 사용용도를 매개로 했을 때만 휴대폰 의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휴대폰 기능별 사용 내용이 휴대폰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이는 청소년들이 휴대폰의 기능 중 무엇을 주된 목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에 따라 자아탄력성, 또래애착 등의 영향력도 달라질 수 있고 또한 이에 따라 휴대폰 과다사용 양상도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아탄력성, 또래애착이 휴대폰 과다사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에 앞서 자아탄력성, 또래애착 등이 휴대폰의 기능별 사용정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 자아탄력성, 또래애착은 각각의 하위영역에 따라 휴대폰 사용에 대한 영향력이 차이가 있어 [4,15] 하위영역별 차이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녀중학생을 대상으로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의 하위영역, 휴대폰 이용관련 특성이 휴대폰 기능별 사용정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휴대폰 기능별 사용정도는 본 연구결과 휴대폰 기능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와 메신저, 인터넷, 음악 기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휴대폰 과다사용이나 중독과 같은 문제들을 휴대폰의 기능별 사용 정도와 이에 영향하는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 휴대폰 이용관련 특성 등과 관련지어 규명함으로써 청소년의 올바른 휴대폰 사용 문화를 위한 관리 및 중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또래애착의 하위영역 특성, 휴대폰 이용관련 특성이 휴대폰의 기능별 사용정도, 즉 SNS와 메신저, 인터넷, 음악기능 사용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

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휴대폰 이용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남녀별 중학생을 대상으로 남녀별 자아탄력성, 또래애착, 휴대폰 이용관련 특성이 휴대폰의 SNS와 메신저기능 사용정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셋째, 남녀별 중학생을 대상으로 남녀별 자아탄력성, 또래애착, 휴대폰 이용관련 특성이 휴대폰의 인터넷기능 사용정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넷째, 남녀별 중학생을 대상으로 남녀별 자아탄력성, 또래애착, 휴대폰 이용관련 특성이 휴대폰의 음악기능 사용정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또래애착의 하위영역 특성, 휴대폰 이용관련 특성이 휴대폰의 기능별 사용정도, 즉 SNS와 메신저, 인터넷, 음악기능 사용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한 서술적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1개 특별시와 1개 광역시의 3개 중학교 남녀 학생 21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3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222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6.5%이었다. 그 중 불성실한 응답으로 분석이 불가능한 5부를 제외한 총 217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자아탄력성(Ego-Resiliency : ER)

자아탄력성 척도는 체계의 유지나 증진을 위해서 환경 맥락이 요구하는 기능인 자기-통제 수준을 조정하는 역동적인 능력인 자아탄력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Block과 Kremen [3] 이 개발한 도구를 Yu [16] 가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관심을 얻는 능력인 대인관계 3문항,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동적이고 환기적인 접근을 하는 활력성 2문항, 고통이나 괴로운 상황에서 그들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인 감정

통제 2문항, 궁금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호기심 5문항과 삶의 의미에서 긍정적인 신념을 유지하는 낙관성 2문항 등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으며 총 점수범위는 14-5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4이었으며, 하위영역별 Cronbach's  $\alpha$ 값은 대인관계 .77, 활력성 .80, 감정통제 .66, 호기심 .70, 낙관성 .64이었다.

#### 2.3.2 또래애착(Peer Attachment)

Armsden과 Greenberg [7] 가 개발한 부모 및 또래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PPA)를 Ok [17] 이 번안 및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문항 수는 25문항으로 4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으며 총 점수범위는 25-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친구들이 나를 믿어 줄 것이라 기대하는 신뢰감에 대한 10문항, 친구들이 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의사소통에 대한 8문항, 소외감에 대한 7문항으로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92이었으며, 하위영역별 Cronbach's  $\alpha$ 값은 신뢰감 .90, 의사소통 .82, 소외감 .79 이었다.

#### 2.3.3 휴대폰의 기능별 사용정도

휴대폰의 기능별 사용정도에 대한 문항은 기존의 선행연구를 참조로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음성/영상통화, 문자메시지, SNS & 메신저(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게임, 음악듣기, 웹툰보기(만화)/전자책, 인터넷 사용, 동영상보기(영화, 드라마 등), DMB(TV, 위성방송 등), 요금결제수단(교통카드, 티켓 예매 등), 사진 찍기/동영상 촬영, 알람/모닝콜, 시간/달력 보기, 메모와 일정 관리 및 기념일 확인, 기타 등 휴대폰 기능별로 사용 정도에 대한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사용하지 않음' 0점에서 '매우 자주사용' 4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휴대폰의 기능별 사용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총 15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69이었다.

#### 2.3.4 휴대폰 이용 관련 특성

본 문항은 연구자가 작성하였으며, 휴대폰 이용 관련 특성은 휴대폰을 처음 구입 후 사용한 휴대폰 사용기간,

하루 평균 휴대폰 사용시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휴대폰 1가지 기능 선택에 대한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거주지, 성격에 대한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2.4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서울시 1개교, 울산시 2개교에 연구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조사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면접자 3명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연구자에 의해 설문 조사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고 투입됨으로서 자료수집 절차상의 오차를 최소화 시키고 자료수집자 간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조사면접자들은 조사대상 중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직접 기입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설문지 응답은 15분 정도 소요되었고, 자료수집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윤리적인 고려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비밀보장 됨을 사전에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내용을 설명하고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린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자발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남녀 중학생의 자아탄력성, 또래애착 등이 휴대폰의 기능별 사용정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일반적 특성 및 휴대폰 사용 관련 특성

대상자는 여학생 133명(61.3%), 남학생 84명(38.7%)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62명(28.6%), 2학년 103명(47.4%), 3학년 52명(24.0%) 이었으며, 지난학기 기준 학교 성적은 31등 이상이 60명(27.6%)로 가장 많았다.

휴대폰 사용기간은 36-72개월이 141명(65.0%)로 가장 많았으며, 하루 평균 휴대폰 사용시간은 2시간대가 60명(27.6%)로 가장 많았으며 1시간 이하는 54명(24.9%), 4시

간 이상은 30명(13.8%)이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휴대폰 기능은 SNS & 메신저가 149명(68.6%)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 18명(8.3%), 음악 16명(7.4%)의 순이었다 <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n General & Mobile Phone-related (N=217)

Variables	Categories	N(%)	
Sex	Male	84(38.7)	
	Female	133(61.3)	
School year	1st	62(28.6)	
	2nd	103(47.4)	
	3rd	52(24.0)	
	≤10	54(24.9)	
General characteristics	School performance (ranking/class)	11-20	46(21.2)
		21-30	57(26.3)
		31≤	60(27.6)
		<36	31(14.3)
Duration of mobile phone usage(month)	36-71	141(65.0)	
	72-107	42(19.3)	
	108≤	3(1.4)	
	<1	54(24.9)	
		1-1.9	36(16.6)
Hours of mobile phone usage(hours/day)	2-2.9	60(27.6)	
	3-3.9	37(17.1)	
	4≤	30(13.8)	
Mobile Phone-related Characteristics	The most used function of mobile phone	Phone call	8(3.7)
		Texting	10(4.6)
		SNS & Messenger	149(68.6)
		Game	14(6.5)
		Internet	18(8.3)
		Music	16(7.4)
		Others(Taking Pictures, DMB)	2(0.9)

### 3.2 남녀별 중학생의 휴대폰 SNS & 메신저기능 사용의 영향요인

남학생의 휴대폰 SNS & 메신저 기능사용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은 47.6%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7.96, p<.001).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에서 대인관계수준이 높을수록(t=4.78, p<.001), 활력성수준이 낮을수록(t=-2.63, p=.010) SNS & 메신저기능 사용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또래애착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영향요인이 없었다. 또한 하루 평균 휴대폰 사용시간(t=5.03, p<.001)이 많을수록, 휴대폰 이용기간이 장기간일수록 (t=2.27, p=.026) 휴대폰의 SNS & 메신저기능 사용정도가 높았다.

여학생의 휴대폰 SNS & 메신저 기능사용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은 19.9%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F=16.12, p<.001$ ). 또래애착의 하위요인 중에서 의사소통수준이 높을수록( $t=3.98, p<.001$ ), 하루 평균 휴대폰 사용시간( $t=3.82, p<.001$ )이 많을수록 휴대폰의 SNS & 메신저기능 사용정도가 유의하게 높아 영향력 있는 변수이었다<Table 2>.

<Table 2> Variables Affecting Mobile Phones SNS & Messenger Usages in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Variables	B	SE	$\beta$	t	p
Male (N=84)	Hours of mobile phone usage(hours/day)	.115	.023	.427	5.03	<.001
	Ego-resilience : interpersonal relation	.975	.204	.410	4.78	<.001
	Ego-resilience : viability	-.440	.167	-.226	-2.63	.010
	Duration of mobile phone usage(month)	.013	.005	.193	2.27	.026
	$R^2=.476, F=17.96, p<.001$					
Female (N=133)	Peer attachment : communication	.495	.124	.313	3.98	<.001
	Hours of mobile phone usage(hours/day)	.049	.013	.300	3.82	<.001
$R^2=.199, F=16.12, p<.001$						

### 3.3 남녀별 중학생의 휴대폰 인터넷기능 사용의 영향요인

남학생의 휴대폰 인터넷 기능사용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은 19.5%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9.78, p<.001$ ). 자아탄력성 호기심수준이 높을수록( $t=3.83, p<.001$ ), 하루 평균 휴대폰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t=2.52, p=.014$ ) 휴대폰의 인터넷기능 사용정도가 유의하게 높아 영향력 있는 변수이었다.

여학생의 휴대폰 인터넷 기능사용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은 25.7%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1.09, p<.001$ ).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에서 호기심수준이 높을수록( $t=5.04, p<.001$ ), 대인관계수준이 낮을수록( $t=-2.21, p=.029$ ) 휴대폰의 인터넷기능 사용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1학년에 비해 2, 3학년이( $t=-3.27, p=.001$ ), 그리고 성적이 31등 이후인 학생에 비해 30등 이내인 경우( $t=-3.03, p=.003$ ) 인터넷기능 사용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Table 3> Variables Affecting Mobile Phones Internet Usages in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Variables	B	SE	$\beta$	t	p
Male (N=84)	Ego-resilience : curiosity	.799	.208	.384	3.83	<.001
	Hours of mobile phone usage(hours/day)	.066	.026	.252	2.52	.014
$R^2=.195, F=9.78, p<.001$						
Female (N=133)	Ego-resilience : curiosity	.803	.159	.451	5.04	<.001
	School year*	-.610	.186	-.254	-3.27	.001
	School performance (ranking/class)†	-.548	.181	-.235	-3.03	.003
	Ego-resilience : interpersonal relation	-.405	.183	-.196	-2.21	.029
$R^2=.257, F=11.09, p<.001$						

\*Dummy variables: School year:1st=1, 2nd & 3rd=0;

† School performance ranking: more than 31=1, less than 30=0

### 3.4 남녀별 중학생의 휴대폰 음악기능 사용의 영향요인

남학생의 휴대폰 음악 기능사용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은 36.7%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1.45, p<.001$ ).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에서 활력성수준이 낮을수록( $t=-4.54, p<.001$ ), 낙관성수준이 높을수록( $t=3.14, p=.002$ ), 또한 하루 평균 휴대폰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t=2.54, p=.013$ ) 음악기능 사용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4> Variables Affecting Mobile Phones Music Usages in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Variables	B	SE	$\beta$	t	p
Male (N=84)	Duration of mobile phone usage(month)	.022	.006	.338	3.63	.001
	Ego-resilience : viability	-.971	.214	-.508	-4.54	<.001
	Ego-resilience : viability	.651	.207	.353	3.14	.002
	Hours of mobile phone usage(hours/day)	.062	.025	.236	2.55	.013
$R^2=.367, F=11.45, p<.001$						
Female (N=133)	Hours of mobile phone usage(hours/day)	.040	.017	.196	2.33	.021
	Duration of mobile phone usage(month)	.009	.004	.213	2.50	.014
	Ego-resilience : viability	-.343	.141	-.204	-2.43	.017
$R^2=.118, F=5.77, p=.001$						

여학생의 휴대폰 음악 기능사용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은 11.8%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5.77, p=.001$ ). 하루 평균 휴대폰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t=2.33, p=.021$ ), 휴대폰 사용기간( $t=2.50, p=.014$ ), 자아탄력성 하위요인 중에서 활력성수준이 낮을수록( $t=-2.43, p=.017$ ), 휴대폰 음악기능 사용정도가 유의하게 높아 영향력 있는 변수이었다<Table 4>.

#### 4. 논의

남녀중학생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기능은 SNS와 메신저이었다. 이는 Kim과 Shin [1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중독위험군의 스마트폰 사용목적의 약 60%가 SNS사용 때문이라고 한 Jang과 Park [19]의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하며, Cho [20]도 SNS의 과잉적 사용으로 야기되는 서비스 중독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한 바 있다.

남학생의 휴대폰 SNS와 메신저 사용에 영향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대인관계와 활력성으로, 대인관계는 정적으로, 활력성은 부적으로 영향하였다. 또래애착의 하위요인 중 영향요인은 없었다. 즉, 남학생은 다른 사람과의 원활한 대인관계를 위해 SNS & 메신저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지만, 또래를 대상으로 한 대인관계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았다. 또한 자아탄력성의 활력성이 낮은 남학생이 SNS와 메신저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남학생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비활동적이며 환기적인 접근이 아닌 소극적인 대인관계 방법의 일환으로 휴대폰의 SNS와 메신저기능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Kim과 Shin [18]은 스마트폰의 SNS와 메신저를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여학생은 메신저를 이용하면서 의사소통과 관계형성을 하는데 특히 또래관계를 중요시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Kim과 Byun [15]은 또래관계에서의 의사소통 수준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휴대폰 SNS와 메신저사용에 영향하는 요인은 또래애착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으로, 여학생의 SNS와 메신저 사용은 주로 또래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휴대폰 인터넷 사용정도에 영향하는 요인은 남녀학생 모두 자아탄력성의 호기심이었다. 즉, 궁금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호기심이 많을수록 남녀학생 모두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휴대폰 인터넷 사용정도에 영향하는 요인은 학년과 성적이었다. 즉, 1학년에 비해 2, 3학년이 인터넷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년이 높을수록 휴대폰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한 Han [5]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성적이 31등 이하로 최하위인 학생에 비해 30등 이내인 경우 인터넷기능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 스마트기기의 교육적 활용방안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더불어 다양한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Pi [21]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면 특히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학업장애와 내성에 있어서 크다는 Kim과 Byun [15]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여학생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면 학업장애로 성적이 낮아질 수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휴대폰의 인터넷기능 사용만으로 한정하여 보면 최하위 성적집단에 비해 그 이상 성적집단에서 인터넷기능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휴대폰 기능별로 분석 시에는 그 영향력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휴대폰 음악기능 사용정도에 남녀학생 모두 자아탄력성의 활력성이 부적요인으로 나타나, 주로 비활력적인 남녀학생이 휴대폰을 통해 음악듣기 등을 즐기고 있었다. Seo [22]는 청소년의 음악선택은 개인적 요인 즉 자신의 성격, 성향, 기질과 관련이 있으며, 스트레스가 쌓일 때 또는 우울할 때 음악 감상을 원한다 하였고, 또한 휴식 및 이동시 음악을 많이 듣는다고 한바 있어 주로 음악을 이용하는 동기적 환경은 비활력적인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었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휴대폰 음악기능 사용정도에 있어서 자아탄력성의 활력성은 부적요인이지만 낙관성은 정적요인으로 나타나, 비록 활력적이지는 않지만 삶의 의미에서 긍정적인 신념을 유지하는 남학생이 휴대폰의 음악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하루 평균 휴대폰 사용시간 [15,19]과 휴대폰 처음 구입 후 현재까지 사용한 기간 Kood와 Park [23]이 스

마트폰 중독의 영향요인이라는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이와 맥락을 같이 하여 본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휴대폰 인터넷 기능사용을 제외한 모든 학생의 SNS와 메신저, 음악 및 인터넷기능의 사용정도가 하루 평균 휴대폰 사용시간이 길수록 높았다. 또한 휴대폰을 사용한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남학생의 SNS & 메신저, 남녀학생의 음악기능 사용정도도 높았다.

Noh [2] 는 SNS를 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남녀 고등학생의 또래애착이 스마트폰 과다사용 수준이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청소년의 SNS의 사용을 줄이고, 현실에서 또래와 SNS가 아닌 상호작용을 늘려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조절하고자 한 바 있다. 즉, 휴대폰의 기능별 중재를 통한 휴대폰 과다사용에 대한 접근법을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휴대폰의 다양한 기능별로 자아탄력성과 또래애착의 하위요인별 영향요인이 다르며, 또한 남녀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즉, 휴대폰 기능별로 뿐만 아니라 영향요인의 하위영역별, 성별 등 다양한 시각으로 그 영향력의 차이를 확인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 남녀중학생의 68.6%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기능은 SNS와 메신저로, 그다음 순위에 해당하는 인터넷 8.3%, 음악 7.4%와도 큰 차이가 있었다. SNS와 메신저사용에 있어서, 남학생은 대인관계를 위한 소극적인 방법의 일환으로, 여학생은의 주로 또래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었다. 기존의 연구에서 SNS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24], 스마트폰 중독에 또래관계의 의사소통이 정적인 영향요인이라고 한 Kim과 Byun [15]의 연구결과와 통화보다 문자를 많이 쓰는 학생들이 스마트폰 중독위험성이 크다는 Cho [25]의 연구결과를 볼 때, 주로 또래관계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문자를 주로 사용하는 SNS와 메신저의 과다사용이 휴대폰 과다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높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감소시키고 결국 외로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6]. 따라서 SNS와 메신저를 통해서가 아닌 직접적인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을 통해 원활한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및 중재관리를 통해 SNS와 메신저의 과다사용을 예방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른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의표집에 의한 2개 도시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추후 무작위 표집에 의한 반복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휴대폰 기능별 사용정도와 이에 영향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휴대폰 기능별 사용정도가 휴대폰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현대의 휴대폰은 사용자 중심의 다양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활용도가 높아서 휴대폰 과다사용도 휴대폰의 기능별 사용에 따른 SNS중독, 웹중독 등 사용자별 새로운 콘텐츠 중독 등으로 분류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또래애착의 하위영역 특성, 휴대폰 이용관련 특성이 휴대폰의 기능별 사용정도, 즉 SNS와 메신저, 인터넷, 음악기능 사용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한 학술적 연구이다.

휴대폰 SNS & 메신저기능 사용정도는 남학생의 경우 자아탄력성의 대인관계 수준이 높을수록, 활력성 수준이 낮을수록 높았고, 여학생은 또래애착의 의사소통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 인터넷기능 사용정도는 남녀학생 모두 자아탄력성의 호기심 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 또한 여학생은 1학년에 비해 2, 3학년이, 성적이 31등 이후인 학생에 비해 30등 이내인 경우 인터넷기능 사용정도가 높았다. 휴대폰 음악기능 사용정도는 남녀학생 모두 자아탄력성의 활력성 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

또한 여학생의 휴대폰 인터넷 기능사용을 제외한 모든 학생의 SNS와 메신저, 음악 및 인터넷기능의 사용정도가 하루 평균 휴대폰 사용시간이 길수록 높았다. 또한 휴대폰을 사용한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남학생의 SNS & 메신저, 남녀학생의 음악기능 사용정도도 높았다. 이와 같이 휴대폰의 다양한 기능별로 자아탄력성과 또래애착의 하위요인별 영향요인이 다르며, 또한 남녀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남녀중학생의 68.6%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한 휴대폰 기능은 SNS와 메신저이었다. 이러한 SNS와 메

신저의 과다사용이 휴대폰 과다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휴대폰 기능별 사용정도가 휴대폰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이를 통하여 휴대폰 기능별 사용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아탄력성과 또래애착을 하위영역별로 적용하여 중재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ACKNOWLEDGME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grants from Hanseo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in 2014.

## REFERENCES

- [1] Y. C. Jung, "Generation's Smartphone Use Characteristics and Influence Change", [Internet], Seoul: KISDI;2016 [cited 2016 May 30]. Available from:<http://www.kisdi.re.kr/kisdi/fp/kr/publication/1istResearch.do?cmd=fpListResearch&sMenuType=2&curPage=1&sSubjectNo=0&sSubjectNo=0&sSDate=&sEDate=&searchKey=TITLE&searchValue>.
- [2] S. M. Noh, "The Effect of Adolescents' Parents Attachment and an Age Attachment on a Smartphone Overu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Cheonan, 2015.
- [3] S. O. Jang, H. S. Jeon, "A Study on the Condition of Prevention System and Convergence Policy for Smart Media Addi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8, pp. 33-41, 2015.
- [4] Block J., Kremen A. M., "IQ and Ego-Resiliency :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pp. 348-361, 1996.
- [5] H. J. Han, "Effects of Adolescents' Stressors and Ego-resilience on Mobile-phone Overu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Cheonan, 2009.
- [6] K. A. Jung, B. W. Kim, "The Differences of the Ego-Resilience and Disagreement in Parents' Rearing Attitude according to the Levels of the Smartphone Addict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2, pp. 299-308, 2015.
- [7] Y. M. Kim, Y. S. Lim, "Structural Model of Democratic Parenting Style, Ego-resilience, Cell Phone Dependency, Self-directed Learning",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3, No. 2, pp. 273-299, 2012.
- [8] Armsden G. C., Greenberg M. T.,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16, No. 5, pp. 427-453, 1987.
- [9] H. D. Lee, H. Y. Hong,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Internet Addi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Lonelines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8, No. 10, pp. 271-294, 2011.
- [10] D. Y. Kim, H. C. Yang, "The Effects of Ecological Factors on the Trajectory of Cellular Phone Dependency during the Middle School Year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5, No. 3, pp. 169-197, 2014.
- [11] S. Z. Roh,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Environmental and Personal-psychological Factors, Smartphone Usage Motivation Affecting High-school Student's Smartphone Addic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Vol. 19, No. 4, pp. 659-691, 2013.
- [12] Y. J. Kim, G. P. Cho, "The Mediating Effects of Peer Relation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martphone Overindulgence of High-school Students",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 8, No. 1, pp. 1-14, 2016.
- [13] H. W. Yu, H. Y. Hong,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Self-esteem St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Attachment and the Tendency of SNS Addic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27, No. 4, pp. 977-999, 2015.



- [14] J. H. Kim, "The Effects of Parental Factors, Friend's Factors and Personal Factors on the Mobile Phone Dependency of Youth Mediated by Mobile Phone Uses", *Journal of Youth Welfare*. Vol. 14, No. 3, pp. 97-120, 2012.
- [15] H. S. Kim, S. H. Byun, "Impact of Smartphone Addiction of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 10, No. 5, pp. 117-125, 2015.
- [16] M. N. Yu, "The Effect of the Peer Attachment and Ego-Resilience on Intrinsic Problem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Ga Chon University, Seongnam, 2013.
- [17] J. Ok,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998.
- [18] H. M. Kim, S. H. Shin, "Comparison of Gender Factors Affecting Middle School Students' Smartphone Addiction", *Journal of Korean Academic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 24, No. 3, pp. 145-155, 2015.
- [19] I. S. Jang, S. M. Park, "Factors Affecting on Smartphone Addiction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Addiction-Risk Groups among College Students : A Focus on Self-control",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27, No. 6, pp. 634-643, 2015.
- [20] M. K. Cho, "The Relationships among Smart Phone Use Motivations, Addiction, and Self-Control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5, pp. 311-323, 2014.
- [21] S. Y. Pi, "Educational Utilization of Smart Devices in the Convergence Education Er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6, pp. 29-37, 2015.
- [22] S. M. Seo, "A Study on the Behavior of Adolescence's Music Listening",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Vol.2, No. 2, pp. 1-14, 2005.
- [23] H. Y. Koo, H. S. Park, "Factors Influencing Cell Phone Addict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Child Health Nursing*. Vol. 16, No. 1, pp. 56-65, 2010.
- [24] J. E. Chang, "Convergence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 A Study on the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of SNS Affecting Relationship Development between Professor and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213-219, 2015.
- [25] M. K. Cho, "The Relationships among Smart Phone Use Motivations, Addiction, and Self-Control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5, pp. 311-323, 2014.
- [26] M. S. Yim, "Smart Paradox: An Effect of Mobile Instant Messenger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3, No. 4, pp. 7-13, 2012.

#### 김 은 주(Kim, Eun Ju)



- 1983년 2월 :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1987년 2월 : 서울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1999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보건학과(보건학박사)
- 2000년 3월 ~ 현재 : 한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보건학, 학교보건, 지역사회간호학
- E-Mail : eunjkim@hanseo.or.kr